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광주광역시
광산 풀두레

1997. 10.15. 3:00pm

전북 익산공설운동장 (마당종목)

주최/ 문화체육부, 한국문예진흥원

주관/ 전라북도, 익산시.

광산 풀두레

고증 · 연출/지춘상(전남대), 지도/박용재(광주대)

■ 작품 내용 및 연출 순서

1. 본부석을 향하여 인사를 한다.
2. 방구소리가 울리면 초군들이 지게를 지고 마을 앞의 당산 거리로 모인다.
3. 초군들이 방구 장단에 맞추어 「산타령」을 부르며 산을 오른다.
4. 초군들이 흩어져 신세타령을 부르며 풀을 벤다.
5. 풀을 다 벤 초군이 방구를 울리면 모든 초군들이 지게에 풀을 지고 모인다.
6. 초군들이 방구 장단에 맞추어 「산타령」을 부르며 산을 내려온다.
7. 마을에 도착한 초군들이 풀을 부린다.
8. 작두에 풀을 썰어 쌓는다.
9. 쌓아놓은 풀에 분뇨를 뿌린다.
10. 분뇨를 뿌린 풀에 이엉을 덮고 새끼줄로 동여맨다.
11. 농악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추다가 인사하고 퇴장한다.

■ 작품 해설

「광산 풀두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일대에서 행해져온 전통적인 민속놀이로 여러사람이 한데 어울려 품앗이 형태로 풀을 베는 풀베기를 이르는 말이다. 풀베기는 광주·전남의 여러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민속놀이지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에서와 같이 '풀두레'라 하여 집단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광산풀두레」의 과정은 초군들을 모으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방구를 울려 마을 앞의 당산거리로 초군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방구가락과 함께 산타령을 부르며 산을 오른다. 산타령은 육자백이 가락에 얹혀 부르는 매우 구슬픈 가락으로 혼자서 부를 때에는 지게목발을 두드리며 부르지만 여럿이 모이면 방구를 두드리며 부른다.

산에 오르면 풀을 베기 시작하는데 이때에는 신세타령이 불리워진다. 또 상대방이 베어놓은 풀을 따먹기하는 민속놀이로 「낫치기」, 「갈꾸치기」, 「지게 들기」등이 곁들여지는데 이와같은 「광산 풀두레」는 미분화된 종합예술적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계화 영농에 밀려 차츰 사라져 가고 있는 수많은 민속놀이 중에서 「광산 풀두레」를 재현하고자 하는 뜻은 공동 노작형태와 민속예술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무등의 찬란한 빛
세계로! 미래로!